기준금리 인하·주주환원 확대 등 증권株, 중장기 성장 가능성 '주목'

금리인하로 낮은 조달금리 등 도움
삼성·NH투자證, 밸류업 모멘텀 높아
4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늘어날 전망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금리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내년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 데다 밸류업 기대감과 해외 주식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증권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KRX증권지수가 최근 한달간 1%가량 하락했다. 최근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증권 업황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 정책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사이클은 채권평가 이익 확대뿐만 아니라 낮은 조달금리도 기업금융(IB), 리테일영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증권업 호황기였던 코로나19 당시만큼은 아니겠으나 높은 조달금리와 PF충당금 부담을 덜어낸 실적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주들의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모멘텀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과거 주주환원보다는 성장에 자본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여유자본을 재투자가 아닌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치제고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돼 있는 바 주주환원 확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주주환원 관련 모멘텀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꼽혔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경우 그룹사와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앞서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에서 중장기적으로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점진적 주주환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NH투자증권은 이달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제시한 주주환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의 4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 연구원은 "10월, 11월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추세를 고려시 4분기 양호한 수준의 해외주식 수수료가 예상된다"며 "커버리지 증권사 중 해외주식수수료 민감도가 높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며 향후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양호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상위그룹 참여에도… '밸류업 ETF' 성과 저조

공시기업, 총 60곳… 예고공시 26곳
삼성·SK·현대車·LG 등도 공시 완료
ETF 12종 한 달 수익률, 평균 -5.07%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국내 재계서열 상위 10대 그룹 중 4개 그룹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며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밸류업 관련 상품의 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밸류업 ETF'는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예고 공시를 한 26곳을 더하면 총 86개 기업이 밸류업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 2621개 중 3.28%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 29일 종가 기준 본 공시와 예고 공시를 한 기업들의 시총은 755조 9847억원에 달해 코스피·코스닥 전체 시총인 2011조4214억원 중 약 37.58%에 달한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으로 분류되는 코스피 상장 기업 10개 중 4개가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 중 SK, LG, 현대자동차, 롯데가 밸류업 공시까지 완료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시총의 75.94% 차지하고 있으며 밸류업 공시를 완료한 4개 기업은 전체 시총에서 31.61%를 창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초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과는 저조하다.

밸류업 ETF 12종의 상장 이후 한 달(11월4~29일) 수익률은 평균 -5.0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5.14%)보다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

밸류업 ETF 중 패시브형을 채택한 SOL 코리아밸류업TR의 수익률이 -5.72%로 가장 낮았으며, KOSEF 코리아밸류업이 -5.17%로 패시브형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임에도 가장 성적이 높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4개 대기업의 밸류업 참여는 고무적인 성과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시총이 가장 큰 그룹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자사주 매입 공시만 내놓아 아쉽다"며, "밸류업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가치 제고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트럼프 수혜' 공모펀드, 수익률 1위

우주, 금융 펀드 유형서 수익률 1위
로켓랩, JP모건 체이스 종목 등 편입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편입 비중을 높인 공모펀드 2종의 수익률이 동일 유형 펀드 중 1위를 기록했다.

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UH 펀드(C-e 클래스)는 6개월 수익률 50.9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공모펀드의 평균 수익률(6.28%)을 크게 압도하며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펀드(S-R 클래스)도 같은 기간 15.68%를 기록해 해외 금융 펀드 유형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UH 펀드는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전통 기업 및 떠오르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데이터 기반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석으로 비상장 기업인 SpaceX의 파트너사에도 투자하며 혁신 기업 성장에 대한 간접적 노출도 추구한다. 22일 기준 주요 편입 종목은 ▲로켓랩(Rocket Lab) USA(8.33%) ▲록히드마틴(6.81%) ▲플래닛랩스(6.20%) ▲조비에비에이션(4.78%) ▲인튜이티브머신스(4.61%) 등이다.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UH 펀드 운용역인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위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군사 및 민간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펀드는 글로벌 금융 산업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표 투자은행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22일 기준 해당 펀드의 주요 편입 종목은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7.67%) ▲버크셔 해서웨이(5.75%) ▲뱅크오브아메리카(5.14%) ▲웰스파고(4.75%) ▲골드만삭스그룹(4.55%) 등이다.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 펀드 운용역인 황우택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부서장은 "트럼프는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후에는 자본 요건을 낮춰 금융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

KRX-IDB, 중남미 자본시장 역량강화 초청 연수

한국거래소(KRX)는 서울사옥에서 미주개발은행(IDB)와 협력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KRX-IDB, 중남미 자본시장 역량강화'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아르헨티나 · 에콰도르 · 파라과이 등 8개국 자본시장 관계자 15명이 참여하며, 중남미 지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의 성공적 운영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전문가 강의 및 실무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iM증권, 영업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 마무리

영업점, 21개 → 11개로 통폐합
희망퇴직 통해 경영효율화 추진

iM증권은 영업점 절반을 통폐합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고강도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iM증권은 2023년말 21개 영업점을 올해 12월 11개로 통폐합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영남권 중심의 과다점포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과 관리자산으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WM사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점포 통폐합과 함께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점포 통폐합과 함께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지난 10월 1차 희망퇴직 34명과 11월 추가 희망퇴직으로 총 5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리테일 부문에서는 약 20%의 인력 감축에 따른 판관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통폐합 영업점은 거점별 메가센터 모델로 전환해 4~5명 단위의 자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영업팀을 운영한다. 고객들에게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iM증권은 점포와 인력 슬림화, 일하는 방식 및 제도 개선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전략적인 점포 운영으로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리테일부문을 2025년도에는 흑자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SOL 美AI 소프트웨어 ETF' 순자산 500억

한 달 만에 순매수액 300억 몰려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AI 소프트웨어' ETF의 순자산이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300억원 이상 몰린 결과다. 지난 10월 말 152억원이던 순자산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미국의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수익성 우려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AI B2C(기업과 개인의 거래) 소프트웨어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실적기반의 주가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실적을 기반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팔란티어, 오라클, 서비스나우, 페어아이작 등은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모멘텀을 내년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SOL 미국AI 소프트웨어 ETF는 AI소프트웨어 분야별 1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장점으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AI 사이클 변화 대응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SOL 미국AI 소프트웨어 ETF는 'SOL 미국AI 시리즈'의 두 번째 상품으로 지난 5월 상장했다. /신하은 기자